

experience
Life As Mission

134th, Winter, 2019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 터 서 브 프렌즈

창조 세계 돌봄
왜 해야 하나?

나의 행복한 팀 사역
이윤경 선교사 인터뷰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제임스 선교사

선교적 교회의 DNA를 배양하라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크리에이션케어, Why?_1 _ 조샘 대표
- 08 선교적 숲 모임 _ 송기태 부대표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11 인터서브 파트너를 만나다 _ 이윤경 선교사
- 14 미션얼 패밀리 _ 레이첼 온트랙커
김령 크리에이션 케어 전문위원

Ministry
어려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6 인터서브 필드 _ 라오스
- 18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천천히 _ 제임스 선교사
- 21 인터서브의 사계절
- 22 미션얼북 _ 아버지 :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크리에이션케어, Why?_1

조샘 대표

크리에이션 케어(Creation Care)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직역하면 ‘창조 돌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세계, 특별히 자연에 대한 관심은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션 케어는 크리스천들이 자연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실제로 자연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보존하고 회복하려는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국제 인터서브는 2018년 10월 인터서브 전체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사역 Creation Care의 성경적 명령에 더 깊이 헌신함’을 중요한 우선 순위로 정했습니다. 현재의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연 재해와 해양 및 대기의 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환경을 생각함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다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1.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전에는 이야기가 없었나?
2. 복음 전도와 무슨 관련이 있나?

3. 비기독교인들의 환경운동과 무엇이 다른가?
4. 그러면 무엇을 할까?

2019년 겨울호

2020년 봄호

질문 1.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전에는 이야기가 없었나?

성경은 과거의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적은 글들을 모은 문서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나타날 때 그에 대한 답을 바로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나 일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이해는 비교적 최근인 종교 개혁 이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가족 집단주의의 문화에서 세대 간의 믿음 전수는 중요하지만, 부부를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농경사회에서는 직업의 의미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상과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는 도시 문화와 핵가족 라이프스타일 가운데 부부의 관계는 무척 중요해집니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직업의 의미 역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과 시대에 걸쳐 쓰여졌기에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의 경전과 다른 점입니다. 실제 역사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여러 경험들이 함께 모여있기에, 오히려 새로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일관된 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종교적 틀, 성경 해석만이 옳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엄밀하게 기독교적 인식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요구되는 성경적 원리의 탐구와 해석은 복음을 흐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문화 속에서 간헐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넓힘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한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성경의 특징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접하는 모든 질문들에 성경이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신약 시대에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지식이나 우리의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메시아됨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요한 20: 30, 31),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선한 일을 하기에 돕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딤후 3: 16).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는 백과사전은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농업혁명과 의료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자연의 파괴로 인한 새로운 현상입니다. 사실 인간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연으로부터 위협받았고 자연을 숭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서야 교회와 기독교가 이 현상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고민과 씨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넓게 이해하고 확장할 기회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석들이 재발견될 시간입니다.

질문 2. 복음의 증거와 무슨 상관인가?

복음 전파는 말과 삶 전체로 함께 일어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왕이시며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통치를 믿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돌보고 아끼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소식을 말로 또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는 증거를 동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피조물을 아끼고 돌보는 삶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 삶의 증거에 크게 영향을 받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십 대의 청년들을 잃어가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자료들은 꽤 정확한 수집 과정을 거친 자료들입니다. 2015년 인구 조사에서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를 종교로 적은 사람은 19.73%인 반면 기독교를 종교로 적은 청년들은 17.62%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정체이고, 비종교인들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난 10년을 감안할 때, 이 청년들은 새 신자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자녀이며 절대 통계 숫자에서 부모 세대에 비해서 감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 믿을 만한 통계 조사는 5년마다 행해지는 2017년 학원복음화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대학원생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은 15.0%로 2012년 조사와 2015년 인구 조사 비율보다 2%감소했습니다. 실제 대학생 선교단체의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모임 참석률은 훨씬 더 낮고, 특별히 지역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종합해보면, 기독교는 자녀들을 잃고 있으며,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의 비율은 늘어가고 신앙을 떠나는 속도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날까요? 부모 세대들에게서 복음전도에 걸맞은 복음의 증거를 보지 못함도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급격한 시대의 변화 가운데, 청년들은 과거 우리가 가졌던 것과는 다른 질문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 가운데 다시 복음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복음전도는 세상에서 힘을 잃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세대 간의 긴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 세대는 급격한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자원을 고갈시키고 동식물들을 멸종시키고 기후변화를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자원을 앞당겨서 쓴 셈으로 우리는 미래 세대에 빚을 지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피조물들을 돌보는 일

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게 잘못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의 신뢰성조차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배우고 실천함 - 제자의 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천 년 전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과 종교적 행위를 문자적으로 따라 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가 전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그 자라남은 인간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한 이해의 폭과 그 실천으로 인한 세상의 변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역사와 상황은 우리에게 도전과 어려움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보고 성찰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닫힌 구조가 아니라 열려있는 신비입니다. 크리에이션 케어Creation Care는 이 시대의 도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그분의 스토리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

(2020년 봄에 2부가 이어집니다.)

■ 선교적 교회 컬럼

선교적 숲 모임

선교적 교회의 DNA를 배양하라



선교적 교회, 선교적 숲 모임

올 한 해 '한사랑 교회의 선교적 프로젝트 저니'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프로젝트 준비 위원회 모임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당회의 성격을 지닌 기획위원회와 목회자 그룹의 네 번에 걸친 프로젝트 발표와 워크숍이었다. 그 모임과 함께 세 번째로 시도한 주제가 '선교적 숲 모임 만들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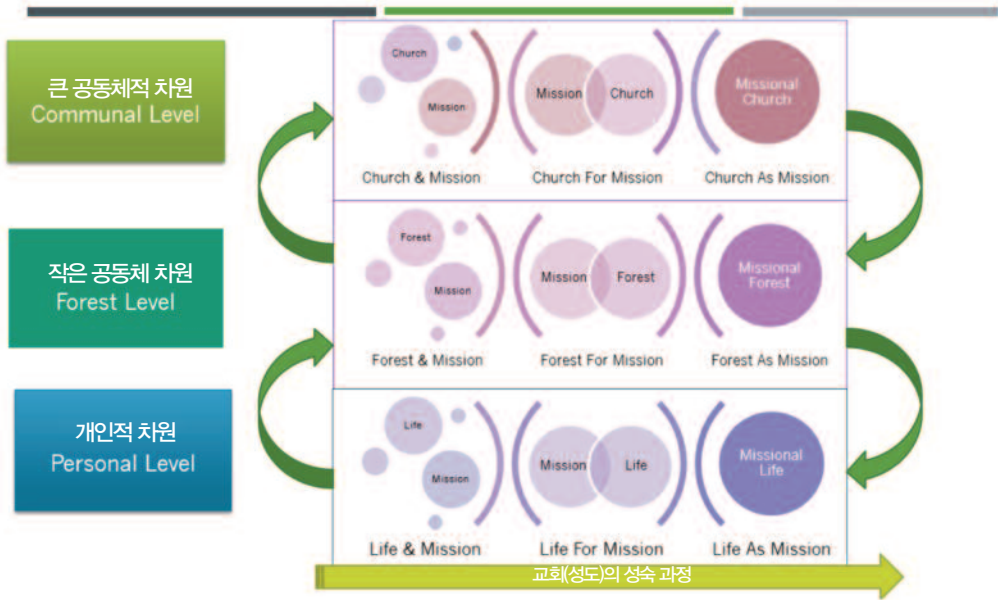


선교적 숲 모임이 성숙해야 할 방향은 그림에서 세 번째 단계이다. 소그룹 모임은 자칫 맨 왼쪽 혹은 기능적인 선교적 셀 모임 형태인 중간의 그림 과정에 머무르기 쉽다. 선교적 교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숲 모임이 선교적인 요소를 배양하며 성숙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향하는 숲 모임은 마지막 단계인 선교적 숲 모임FAM, Missional Forest이다.

선교적 교회, 세 단위의 다이내믹스

한 개의 지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체 공동체적 차원, 중간 규모의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큰 공동체 규모에서 시도해야 하는 방향과 비전 제시, 혹은 교회 차원의 선교적 프로젝트 구상과 진행 등이 있고, 작은 공동체인 셀 모임에서 시도해야 할 내용들이 존재한다. 특별히 셀 모임에서 추구해야 할 선교적missional 작업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여행에서 핵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물론 중간 규모의 모임에서의 선교적 DNA 배양이 개인적 차원의 선교적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프로젝트는 다차원적인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세 가지의 차원에서의 선교적 영향은 각 단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이내믹스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담론을 다루는 공동체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차원의 선교적 삶, 그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셀 모임 등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작업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 세 과정은 또한 공동체적 차원, 소그룹 차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울림 예배 콘텐츠

한사랑 교회에서는 매 주 수요일 오전에 모이는 숲 모임 리더들 모임을 ‘어울림 예배’라 부른다. 이 번 가을 학기 동안 진행하고 있는 숲 리더 모임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숲 모임 재발견하기’ – 숲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숲 모임을 통하여 무엇을 해 오셨는지를 재발견하기. 선교적 교회의 이슈의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해 오셨는가?’이다. 특별히 이 질문은 셀 멤버들의 목양에 지쳐있는 리더들에게 이 주제는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결국에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숲 리더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주제 보다는 “하나님께서 숲 모임을 통하여 무엇을 해 오셨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리더들이 현재의 숲 모임을 재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향후에 숲 모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2단계,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숲 모임’ – 숲 리더들에게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는 자칫 거대담론으로 비쳐질 수 있다. 숲 모임을 인도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선교적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안점은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가 숲 모임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해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 갔다.

3단계, ‘선교적 숲 모임 구성하기’ – 이 단계에서 나는 주제들은 선교적 가정의 의미와 적용들, 선교적 직장의 의미와 적용들이 핵심적인 두 기둥이었다. 물론 이 소주제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을 가지며, 그래서 다이내믹스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다. 이런 소주제와 함께 숲 모임의 전도와 번식,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눌 계획이다. 숲 모임에서는 내부적으로 선교적 DNA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의도적인 전도 사역을 위한 내용과 구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전도가 자신의 삶의 연장선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또한 주변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목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 방식에 대해서는 소위 ‘오이코스 전도’라는 관계와 중보 기도를 통한 공동체적 전도를 시도해 볼 계획이다.

선교적 숲 모임에 대한 기대

셀모임은 선교적 교회로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모임 단위다. 셀모임은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 선교적 DNA를 형성하기 좋고, 교회 공동체의 선교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쉽고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룹이다. 숲 모임이 선교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또한 개인들의 선교적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기준으로 할 때 교회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가정 교회 형태이며, 또 다른 형태가 셀 교회 형태이다. 즉 대부분의 교회들은 셀이 기반이 되는 교회 형태이다. 기존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성장, 혹은 성숙해 가는데 있어서 셀 모임은 선교적 DNA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 번의 한사랑 선교적 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사랑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성숙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인터서브 파트너를 만나다



이운경 선교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의 행복한 팀 사역

이운경 선교사 가정은 2005년부터 몽골의 의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다 2017년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해외 의사들을 훈련하며 양육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프렌즈 구독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 남편의 아내이자, 세 딸의 어머니, 이운경입니다. 재활의학 의사로 지난 20년 동안 몽골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작년 3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Q. 선생님께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 초등 3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감싸주셨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그런지, 믿지 않는 집안이지만,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Q.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을 대학교 때 그만두셨어요.

» 사회 부조리에 대해 데모를 많이 하던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어요.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친구들을 죽기도 하고 희생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듣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들었어요. 또 교

회에서 난지도로 주일학교 봉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당하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상에서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러한 고민에 기독교에 대해 회의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Q. 10년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게 된 계기는?

» 하나님을 떠난 10년 동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낮 동안 바쁘게 일하다 저녁에 가만히 있으면 느껴지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97년에 남편이 코이카 국제협력의사로 몽골에 가게 되면서 남편이 생존을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둘째 출산으로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몽골로 간 첫 번째 주일날 남편이 함께 교회를 가겠다고 물었어요. 못 갈 것도 없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아,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왔구나.' 하고 제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

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눈길로 나를 보시고, 내 방황 중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Q.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 남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동일하게 죽어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아픈 마음과 복음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신학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기도모임을 통해 인터서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디로 갈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조건들을 인도해주셔서 다시 몽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Q. 몽골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나요?

» 남편은 몽골 의과대학과 연세천선병원의 몽골 프로젝트 책임자였고, 저는 상황에 맞게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홈스쿨에도 참여하고, 재활의학과에 일주일에 2~3번 출근해서 현지 선생님을 지도했습니다. 또 몽골 국립의과대학 재활의학과는 시작부터 제가 함께 했고, 레지던트 수련도 같이했습니다.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하지 않고 이것저것 했지만, 제일 많이 한 것은 많은 교제를 위한 '밥 하기'였습니다. 큰 두 딸이 자라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언제나 우리는 가족이 한팀이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저도 한 팀이고, 우리 딸들도 그 땅에서 한 팀으로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큰 딸은 자기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온 것에 대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밥한 것도 아빠 통역을 도와

준 것도 자기 사역이었죠.

Q. 매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셨던 역할은?

»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남편과 함께 일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팀이라 갓 육아로 집에 있어야 할 때도 남편은 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기도해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해 기도해줘' 하고 부탁했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아도 남편은 그곳에서, 나는 이곳에서 기도로, 우리가 한 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중보하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첫 번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Q.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 우리가 선교사로 다시 몽골에 돌아갔을 때, 몽골인들에게 우리가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거로 생각했어요. 몽골이 우리에게 영적인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이었어요. 같은 교회의 형제자매들도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결혼을 늦게 하고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다음 날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도 사실 둘째와 셋째 사이에 여러 번의 아픔이 있어 아이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어느정도 알 것 같았어요. 몇 주 뒤에 그 자매가 교회를 다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몽골은 산모가 몸보신을 위해 양고기를 끊어 먹어요. 양고기를 끊어서 주일에 그 자매에게 건네 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울자 그 자매도 울고 서로 끌어안고 영영 울었어요. 그렇게 같이 울고 있을 때, 몽골 사람이 어디 있고 한국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아이를 잃은 엄마 둘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Q. 몽골이 선생님께 매우 각별할 것 같아요. 그 땅을 이제 떠나 오시게 된 이유는?

»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몽골에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워지고, 세운 교회도 현지 목회자들이 잘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의과대학도 우리가 현지에 있지 않아도 되었고, 재활의학과도 세팅이 돼서 교수



세 사람이 환자를 열심히 보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여기에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몽골에 더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안 가게 해주세요. 거기는 너무 어려운 선교지예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오게 됐어요.



Q. 한국에 정착하시면서 느끼시는 삶에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 한국에 처음 살아보는 막내를 위주로 계획을 세웠어요. 막내가 가장 적응하기 쉬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서 아이의 학교를 기준으로 집과 직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도 있겠죠. 제 삶은 큰 변화가 없어요. 주일에 외국인 의사들과 예배도 드리고, 남편과 팀으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뭔가 딱 떨어지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나는 거기서나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선교사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Q.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 몽골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릴 따름 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하는 팀 사역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사실 따로 일하지만, 늘 함께 일한다고 느껴요.

Q. 우리가 함께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에 받으신 상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 이번에는 재활의학과 학회에서 주는 봉사상을 받았어요. 후배들에게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싶어서 많이 쑥스러웠지만 받았어요. 상장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매우 무겁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로 의료계의 리더들을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내가 빛을 쬐구네! 값이야 하는데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Q. 후배들에게 전문인 선교사로서 준비해야 할 것을 조언해주신다면?

» 선교지에서 헌신하면서 살수 있지만, 내 몸이 거기 있지 않더라도 전문 선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선교를 꼭 하나로 규정지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을 넓게 파도 되고, 아니면 폭넓게 여러 영역을 준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flexibility(유연성). 예를 들어 내시경 기계까지 준비해서 갔는데 그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전문적으로 아는 영역이 아닌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선생님께 선교적 삶이란?

» 아침에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빨간 열매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 열매는 왜 저렇게 눈에 띄게 빨간 것일까? 생각하다 ‘나를 빨리 좀 먹고 씨앗을 퍼뜨려줘~.’ 하는 메세지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에게 선교적 삶이란 이런 것 같아요. ‘**날 좀 먹고 내 씨앗을 퍼질 수 있게 하는 것!**’, ‘**가을철 빨간 열매**’ 라고 이야기 할게요. 卍

이윤경 선교사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만나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Interserve Korea를 검색해주세요!


미션얼 Family

레이첼


온트랙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터서브 가족의 딸이 된 레이첼입니다. 저는 현재 인터서브에서 청년 선교 자원을 양성하는 다음세대 텐트메이커 프로젝트의 첫번째 파송 선교사로 A국 B시에 와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해 여름부터 시작된 국내 훈련에서부터 출국하여 정착하기까지 그동안 관심 가지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에 지금처럼 한 발짝 내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현지어 습득을 위언어 공부에 집중하고 있고 대학원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에는 현지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영학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텐트메이커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늘 분명히 기억하며, 영적으로 밝게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로 이곳에서 계속 살고자 합니다.

첫 한 달을 보내며, 길으로 보이는 문화와 환경뿐 아니라, 이곳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한국과 참 많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평화를 깨뜨리는 갈등적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16:11)”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곳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김령

크리에이션 케어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서브 크리에이션 케어 전문위원으로 인사드리게 된 김령입니다. 크리에이션케어는 몇 년 전부터 선교한국 이대행 선교사님께 말씀만 듣다가 올해 선교한국 브레인스토밍에서 처음 조셉 선교사님을 뵈었고 두 분께서 이끌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해왔던 것도 아닌데 올 1월 1일부터 지난 17년 간 하던 영어학원을 정리하고 부모님께서 30년 간 해오신 유기농에 합류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받다니 사실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 어릴 적 꿈은 타문화권 선교사여서 20대 때는 간호사 면허도 따고 영국에서 신학 공부도 조금 했지만 진정한 동기를 필터링하며 콜링에 자신이 없어 그간 지역과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에 사명감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현재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양평 서종면입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 때부터 기장 소속으로 서울에서 유기농을 일찍 접했고 마침내 오빠와 제가 대학원과 대학 생활을 마치 마치고도 전에 아버지 고향인 이곳으로 귀향해서 부모님은 본격적으로 유기농을 시작하셨습니다. 90년대에는 주로 다양한 채소류 위주로 재배해 교회 여신도회를 통해 공급하며 생명운동을 했고 한 십여 년 전부터는 딸기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저도 이 생명 운동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간호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영어를 가르치다 농사를 짓게 되어 스스로의 일상조차 낯선 제가 더 낯선 인터서브에서 크리에이션 케어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잘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다만 인터서브를 향해 이대행 선교사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연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것만을 아닐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LAMS에서 도대체 창조세계 보존과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한 자매를 만났는데 어찌면 저기가 인도하심의 시작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터서브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실 풍성한 교제와 도움과 격려를 통해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부족한 인사의 글을 마칩니다. 卍



☐ 인턴서브 필드

라오스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남은 시간 260일.
단기 선교사로 라오스에 도착한 첫 주는
매우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라오스는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사면에 육지에 둘러싸인 작은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단단했던 제 심장을 녹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라오스 사람들 이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서로 주고받는 정 가운데 삶의 작은 기쁨으로 느끼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화를 좋아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며 장난을 치고,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자주 미소 짓고, 웃으며 쉽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전세계에서 몇 안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동시에 민족주의 불교를 장려하는 라오스는 느긋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열대우림, 거친 산, 장관을 이루는 동굴, 에메랄드색의 눈 등 동화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몇 종의 동물이 있습니다. 또한 인종적 다양성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에도 라오스는 역사상 1인당 폭격이 가장 많은 비극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알콜 중독 그리고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고, 기독교인은 인구의 2%도 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삶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오스 팀에는 공정거래부터 시작해서 축구, 태권도, 의료, 태권도, 커피 등과 같이 교육과, 농업, 비즈니스 분야에서 다양하게 일하는 선

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는 실용적이고 필요가 있는 분야이며, 그들을 섬기고 현지인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라오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인구가 많고, 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열쇠임을 잘 인식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위, 오염, 의료, 교통, 문화적 차이 적응을 힘들게 하는 개인적 어려움과 영적 공격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빈곤과 압제에 함께 씨름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스엔 항상 보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이며, 배울 것이 참 많은 곳입니다. 라오스의 하루의 끝은 언제나 미소와 따뜻한 환영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라오스로 부르시고 계시진 않은지 알고 싶나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할 것입니다. 卍

번역: 이체미 프렌즈

인터서브는 온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1개월~2년 동안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오스 지역과 온트랙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31-778-7932, ontrack.isk@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Laos

 파트너 스토리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천천히...

서울 인구의 반 밖에 안되는 인구 700만명의 작은 나라 그러나 면적으로는 한반도보다 조금 더 큰 '큰 나라'. 북한, 중국, 쿠비와 더불어 전 세계에 몇 개 남지 않은 일당 정치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보도하는 많은 매체들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것처럼 생각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념은 다르지만 물건을 사고팔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축구하고,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세를 주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행 가는 등 많은 부분들이 어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모든 것이 느리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지만 그것을 즐기며 빠름을 부러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느린 나라에 부흥을 기대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의욕을 가지고 사역하지만 사실 불교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다혈질에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느리게 변해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삶에 불교가 뿌리내리고 불교적 삶을 살아가

는 것처럼, 부흥은 빠른 전도와 확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부흥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역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천천히 선교하고자 합니다. 시나브로 혹은 큰 파도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듯이 언젠가는 한 개인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부처 중심의 삶을 압도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외국인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하거나 공개적인 전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복음교단'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독교 교단이 단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교단을 통한 기독교 사역만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교단은 외국인에게 설교하게 하거나 담임목사직을 맡기거나 협력 목회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이곳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학교, 학원, 체육교육,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것을 사역의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만일 외국인이 공인된 교회 외의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용히 아주 작게 노출되지 않게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법 무리가 큰 종족들 중에는 정부 교단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기독교 세력을 넓혀가는 종족도 있습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인 이곳은 복음을 위해 정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15년 6월 말에 우리 가족은 L국 수도인 V시에 도착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며 2년의 시간을 사역의 준비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적응했고 셋째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처음 파송되어 갈 때부터 언어 훈련 뒤에 S도시로 이주하여 사역하기로 계획했던 우리 가족은 2017년 8월 초 S도시로 이사했고, 이제 이사한 지 벌써 2년이 좀 넘었습니다. 2년 전 S도시로 이사할 때 이미 그곳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1년 비자를 받기로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앞으로 사역은 어떻게 시작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원래 생각했던 대로 첫 팀인 이사 후 4년간에는 학교나 기관 등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기반을 잘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



막했지만 사실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코이카 태권도 사범 한 분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이 S주의 교육체육부 실무 관계자들과 인사하며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열리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체육부의 소개를 받아 기도하던 대로 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년 반 동안 시도하였던 교육체육부를 통한 정부 비자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창의적 접근지역인 이곳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자리를 잡고 청소년들과 만나 지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어 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막막하지만 두렵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천천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곳은 직접적인 복음전파와 교회개척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우리와 같은 총체적인 선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열린 지역들처럼 이곳이 복음 전파와 제자훈련에 집중하여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이들과 만나고 뿌리깊은 불교적인 삶을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게 격려하고 지켜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들 외에 모든 결과적인 부분들은 성령께 의지하고 선교적 야망과 업적은 포기하는 것이 이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큰 파도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듯이 언젠가는
한 개인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부처 중심의 삶을
압도할 때를 기다립니다.”



인터서브의 사계절

새로운 도전과 따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봄

새로운 도전의 계절!
선교적 삶을 꿈꾸는 이
들을 위한 미션허브,
자두 나무 모임 시작.



여름

한 여름 밤, 나의 선교적 삶의
시작이 되어 준 사랑하는 너와
의 만남.
후원자의 밤 진행.



가을

깊어가는 가을 잠시 일
상의 업무를 미루고 아
름다운 계절 속에서 쉼
과 여유를 마주합니다.



겨울

일상 속 작은 선교 콘서트,
미션앤라이브.
2019년의 마지막은 부흥과 통
일을 하는 고형원님과 함께 했
습니다.



박영국 목사님을 기억하며
인터서브 미주 디아스포라 동원 대표

박영국 목사님은 2008년부터 인터서브와 동역하였습니다. 중국, 이집트, 베트남, 터키를 방문하여 많은 파트너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선교자원을 개발했습니다. 또, 박목사님 자택에서 LA를 방문하는 파트너들을 섬기고 정기 기도모임과 후원모임을 가졌으며, 많은 파트너들의 재정을 도왔습니다. Business as Mission과 관련해서 William Carey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10년 이 넘는 기간 동안 박목사님은 꾸준히 일관되게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고, 사람들의 바램에 늘 양보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천국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슬프이며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식과 위로함으로의 부르심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위로와 칭찬을 받으며 박목사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섬김을 보이셨던 영국 목사님을 추모하며,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먼저 보낸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미셔널 BOOK


아버지 : 모든 인간 관계의 핵심 요소

스티판 B. 폴터 저 / 씨앗을뿌리는사람, 2007

저자 스티판 폴터는 임상심리학자, 라이프 코치로서 24년간 가족 관계를 연구해 왔다. 그는 3,000명 이상의 아버지와 자녀를 상담하면서 사람들의 직장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직장생활에 가장 중요한 관계 요인이 아버지와와의 관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직장인들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 간다.

하늘 아버지, 땅의 아버지 :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셨다. 사실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분이 모든 인류를 만드신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말 2:10).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연결점에서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가 투영된다는 것이다. 자애로운 아버지에게서 자란 자녀들은 공의의 하나님 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친숙하게 받아들인다. 엄격하지만 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은 모든 대인 관계와 사회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교의 과제로서의 아버지 : 나는 복음의 핵심적인 비유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 안에는 주인공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지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선교는 어찌면 집 간간 자녀들을 기다리며 모으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교의 동인(動因)으로서의 아버지 :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하나님의 유일성 때

문이다. 그 분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자 아버지이다.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동기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다. 그 분은 한 번도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신 적도 없다. 아들과 아버지가 늘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는 이런 관계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와의 관계의 성숙을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다.

The Father Factor :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어떤 한 인격체를 세상에 있게 한 존재이며, 아들과 딸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육신의 아버지 없이 자녀들이 존재할 수 없듯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없이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요소 만은 아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조건을 넘어서 자녀들을 있게 하는 신비한 분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은 다른 의미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이 책을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관계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기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교회 관계)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34호 2019 WINTER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19년 겨울호 통권 134호

발행인 조섬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19. 12. 15.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2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